

• 시론 •

불투명 책임 CEO가 저러

장범식/송실대 교수

투자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기업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저변에는 바로 신뢰감 상실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주가 패턴과는 달리 우리 기업의 표면적 실적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편이 아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거래소·코스닥 기업 공히 2002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일련의 사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코스닥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영투명성 문제가 비단 그동안 거래소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벤처 기업에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 주요과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다. 기업을 사금고화해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사전 공시와 사후제재를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 지속적인 감리시스템 보완은 시장의 중요한 감시도구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상 경영투명성 보장 장치가 그나마 어느 정도 마련된 거래소 기업과는 달리, 아직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외이사제나 감사위원회의 확실적인 도입은 차질 규모가 열세한 중소벤처기업의 비용만 증대시키는 형식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이 경영자문활동을 통해 투자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벤처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당해 기업 CEO의 투명성 확보노력과 의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시장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CEO가 뼈를 깎는 자세로 투명경영을 위해 행동해야 될 때다.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도개선 요구에 앞서 CEO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할 때다.

• 주요뉴스 •

기술신보, 신기술 사업화 중기 자금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국민·하나·우리 은행과 공동으로 우수 첨단신기술 개발과제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기술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국민·하나·우리 은행에서 10억원까지 장기저리로 대출하며, 대략 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및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려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중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기술신보 영업점 및 3개 은행창구에 신청해야 하며,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 및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술신보는 지난해 134개 기업에 407억원, 올해는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178개 기업에 536억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화자금을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표준연, '2006년 선진 7위권 도약' 청사진 발표

오는 2006년까지 우리 국가측정표준 능력이 독일·영국·일본 등과 대등한 수준의 선진 7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은희준)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정보통신·나노·생명과학 등의 첨단분야 표준측정기술 개발과 국가표준 유지, 신규측정표준 및 시험, 화학표준체계 확립, 표준물질 연구 등에 나서는 한편 모든 실험실 환경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ISO품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표준연은 현재 길이·광도·전기·시간·질량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5개 분야의 표준측정 수준을 2006년까지 17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첨단기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IT·NT·BT 등 신기술 분야의 국가표준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표준연은 이에 따라 단전자 전류 및 양자홀 저항 등 첨단 기초표준기술 개발과 광과장 표준기술·나노측정기술 및 생체용 인증표준 물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